

동물약품업계의 현황과 전망

대담자 / 이희구 <동물약품협회전무>

10%~15% 가격인상 불가피하다!

■ 75년도 현황은 어떠했는지? ■



이희구 전무
<동물약품협회전무>

대체적으로 보아서 75년도 상반기의 동물약품업계의 경기는, 2차에 걸친 유류파동과 사료가격인상 등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면치 못하고 고전하다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예년과 비슷한 실적으로 호

황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5년도 농수산부 수입허가액인 160만불이 지난 11월 20일부로 소진되어 내년초까지 약 50일동안 수입이 중지되므로 원료확보가 미비하게 될 것이며 76년도 초에는 이로인하여 제품생산에 약간의 무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제품 개발관계는? ■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인체의 경우는 생산원가가 30%만 넘으면 개발을 안하고 있으나 동물약품업계의 경우는 물론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생산원가 65%까지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인체약품보다 배이상 제품생산 원가가 높은데다가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제약업체간에 서로 과대경쟁으로 덤핑판매를 하

는 사례까지 있어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체약품에 비례하여 올려 받아야 하나 반비례로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 76년도 수입전망은? ■

76년도 수입전망은 정부의 특별법적용품 및 단체추천에 대한 수입억제책에 따라 국산품 대체 가능품목에 대해서는 75년도 수준이하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산대체 불가능품목으로서 올 수준보다 많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한 사유서를 상세히 기록 첨부하여 농수산부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 다시 상공부의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이 가능하여도 비싼 시설비 때문에 생산비가 수입가격의 3~4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수입이 불가피한 것도 있으나 국내의 각 메이커들이 그래도 축산한국의 장래를 위하여 신제품개발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호뭇하며, 허가품목만 해도 현재 700여 품목에 달하게 농수산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의 백신수입은 MD백신의 경우는 일반 생산업체에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 74년의 560만도스에 비해 75년도는 약 배에 가까운 1,068만도스로 호황을 맞았다고 볼수 있겠으며, 일단수입된 백신은 가축위생연구소의 검정을 거친 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량이 늘어난 이유는 많겠지만 첫째로 양계인들의 질병, 방역, 위생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접종율이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소독약은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는지? ■

소독약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질병예방의 첩경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양축가들이 사용방법의 미숙과 인식부족으로 만족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업체의 세일즈맨들이 사용법 및 소독효과 경제성에 따른 약품선정등의 계몽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축산의 번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체의 세일즈맨들은 자기업체의 제품만 PR할 것이 아니라 타회사의 제품이더라도 효과가 뛰어나는 때에는 양축가에 권장할 수 있는 아량과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 약품가격 인상문제? ■

75년도는 소비자불가상승율과, 원료원가상승률에 따른 임금과 선전비의 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10~15%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76년 부터는 장부관리는 물론 각종기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축산업계도 경영을 하지 못하고, 손해만 입게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 양축가에 드리고 싶은말? ■

일반 양축가들은 10여년전의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국산품 불신 시대에서 벗어나 외제를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여 국산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메이커를 믿고 제품을 잘 선택하여 사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청량리가 축약품

◎호흡기병(CRD)特效약

◎빠다리명(포나산구데크)特效약

이제청량리에 팔매세요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동 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8780

